

Daily Auto Check

2020. 8.11(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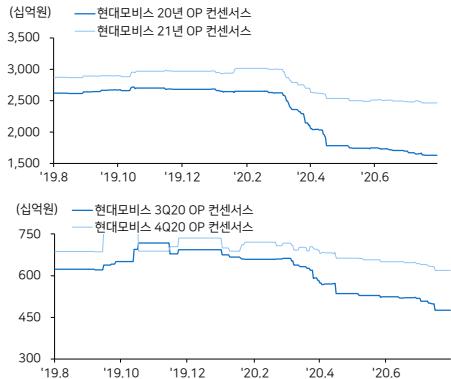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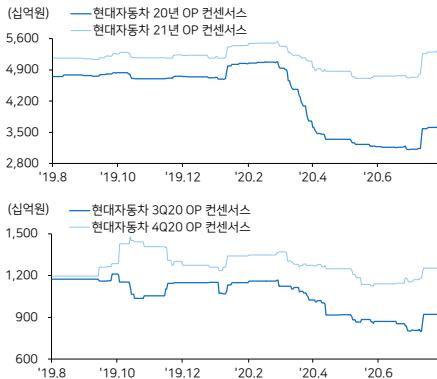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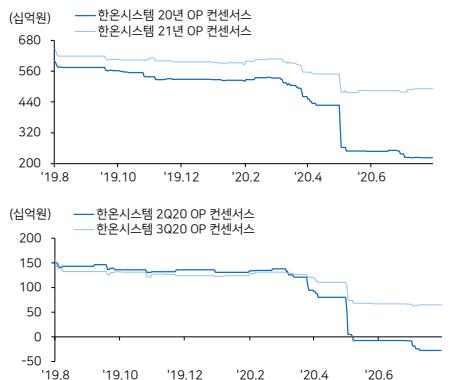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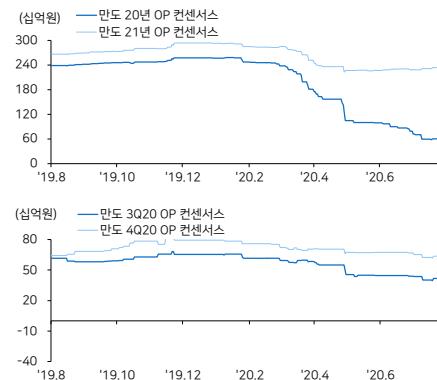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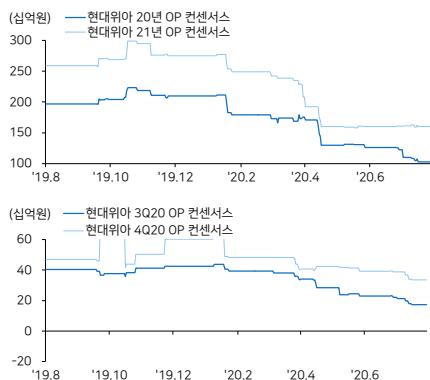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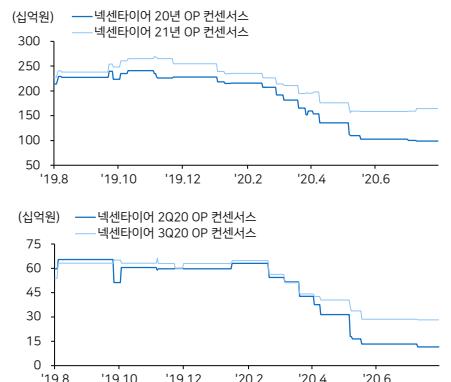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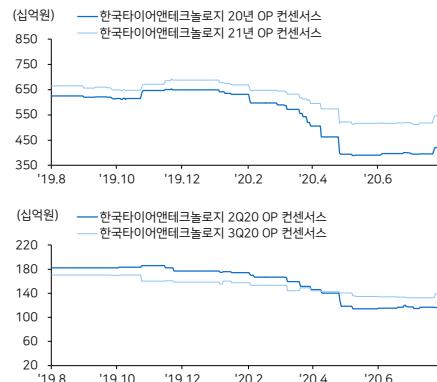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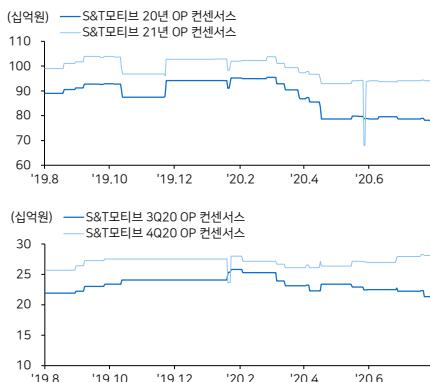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잊혀지던 아이오닉, 현대차 전기차 핵심 브랜드로 발돋움 (ZD코리아넷)

대중에게 잊혀지고 있던 '아이오닉'이 현대차의 핵심 전용 전기차 브랜드로 부활, 현대차가 최근 '아이오닉'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키운다는 영문 캠페인 페이지를 열고, 향후 출시 예정인 전기 대형 SUV의 티저 이미지를 함께 선보임.
<https://bit.ly/3gJUn5a>

현대차, 호주 에너지·가스업체와 수소 공급 MOU (연합뉴스)

현대차 호주 법인이 현지 에너지·가스 업체인 제메나, 코어가스와 수소를 공급받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최근 맺음. 현대차 호주 법인은 내년 초부터 이들 회사로부터 태양광·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기로 함.
<https://bit.ly/33KtcU6>

관세 리스크 '대비하라... 현대차, 美 법제처 차관보 출신 영입 (뉴데일리경제)

현대차가 올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홀여나 불거질 수 있는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 10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법제처 차관보 출신 로버트 후드를 뉴욕 사무소 부사장으로 영입.
<https://bit.ly/2CdnlI8>

타이어 업계 '펑크'... 실적부진에 노사분규, 경영권 갈등까지 (뉴데일리경제)

국내 타이어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감, 실적 악화에 이어 노사분규, 경영권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내우외환의 처지.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는 오는 14일 나란히 지난 2분기(4~6월) 경영 실적을 발표.
<https://bit.ly/2PG63qZ>

모터쇼보다 IT·가전소...현대차, 獨 IFA 첫 참가 (아시아경제)

현대차가 유럽 최대 IT·가전 박람회 IFA 2020에 처음으로 참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 이어 IFA에도 출격하면서 IT·가전 전시회를 통해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모습.
<https://bit.ly/3iu177W>

기아차, e-니로 등 전기차 유럽 공급 확대 (더그루)

기아차가 e-니로 등 전기자동차 유럽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선다. 유럽 전기차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지난달 한 달동안 e-니로 영국 공급분은 지난해 1년치 공급량을 뛰어넘었음.
<https://bit.ly/2CfqAcQ>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쟁취 보다 일자리 확보 주력' (뉴스동아)

현대차 노사가 여름휴가 이후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단협에 본격 돌입. 현대차 노사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여름휴가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정상근무에 나서며, 이번주 내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에 돌입할 예정.
<https://bit.ly/3xaB2d>

Nikola scores 22% after securing order for 2,500 electric garbage trucks (Bloomberg)

Nikola Motors leaped as much as 22% on Monday after finalizing an order for at least 2,500 electric garbage trucks. The deal could expand to 5,000, according to the statement.
<https://bit.ly/2XMLWP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